日 변호사 스님의 법률이야기 화제

박영빈 객원기자

곤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스님과 변호사는 의외로 닮은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두 직업을 함께하고 있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7월 5일 일본의 '야후재팬 뉴스'는 '변호사 스님'인 혼마 히사오 스님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혼마 스님은 에도시대(17~18세기)부터 이어지는 일련종 사찰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스님은 "차남이기에 집안을 이어야한다는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경전이나 불교서적에 둘러싸여 자랐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자유롭지만 불교적인 요소가 가득한 성장배경은 스님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스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생각했다. 사찰을 이을 예정이 없으니, 자신의 기반만으로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고민 끝에 법조계를 선택했다.

다양한 진로 가운데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스님은 "의외로 사찰은 법률과 밀접한 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가장 쉬운 예로 사찰의 경우 예로부터 토지를 여기저기 소유하고, 신도들에게 특별한 문서작성 없이 빌려준 경우가 많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분쟁이 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신행상담 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잦다고 전했다. "변호사가 된다면 사찰이나 신도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스님은 회상했다.

일본에는 예로부터 '몸을 피하는 사찰(駆け込み寺)'이라는 말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을 보장 받기 힘든 이들이 일종의 치외법권인 사찰에 문제해결을 위해 몸을 잠시 의탁하는 것을 이른다. 혼마 스님은 "이러한 말이 아직까지 사용된다는 것은 사찰이 지역의 문제와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며 사찰이 가진 법적인 기능도 설명했다.

혼마 스님, 도쿄대 졸업 후
엘리트 법조인으로 활동해
출가후 사찰 법률상담 활약



자신이 저술한 사찰법무관련 서적을 들고 있는 혼마 히사오 스님. **사진출처=야후재팬뉴스**

혼마 스님은 법조계로 진로를 정한 후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게이오대 로스쿨이라는 엘리트 법조인 코스를 밟았다. 모두가 집중하는 로스쿨 재학 중 스님은 출가를 결심했다. 출가계기에 대해서 스님은 "큰 결심은 없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여름방학기간에 일정이 비는 때에 마침 수행도량이 열렸다"고 전했다.

스님은 "당시 제도로 단기간 집중코스와 같은 출가자 양성제도가 있었다. 약 40일간의 혹독하기 그지없는 수행과 교육을 마치고, 본산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면 승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너무나 혹독해서 몇 번이고 도주할 생각도 했지만, 치열한 정진 분위기에 휩쓸려 모두 해낼 수 있었다"며 웃어보였다.

무사히 승적을 얻고 복학한 후 사법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다. 스님은 "로스쿨엔 다양한 출신의 인재들이 모이지만 사찰이나 불교계 출신은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스님은 현재 자신과 같이 승적을 가진 변호사, 혹은 교계출신의 법조인들과의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 혼마 스님은 "불교학과 법학은 종교학과 사회과학이라는 꽤나 다른 학문의 분야이지만, 서로 보완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적인 시선만으론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불교학으론 응답할 수 있다"면서, "불교는 메마른 현대사회를 다시금 윤택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활동을 위해 평소엔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고 있는 스님이지만 "장래에는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종교법인법 교육을 하고 싶다"며 미래의 포부를 밝혔다.

日 '불멸의 법등' 전국행각도 연기

천태종 종조 원적 1200년 기념
코로나19 사태에 등불도 반납


근본중당으로 '불멸의 법등'을 반납하는 기념법회준비위. **사진출처=히에이산 공식 페이스북**

일본 천태종의 종조 사이쵸(最澄)대사의 원적 1200주년을 기념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불멸의 법등 전국행각'이 결국 무지한 연기됐다. 7월 3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불멸의 법등'은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 히에이산(比叡山) 엔랴쿠지(延暦寺)의 본당인 근본중당(根本中堂)에 켜져 있는 등불의 별명이다. 이 등불은 799년 사이쵸 대사가 "미래의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불법의 등불이 밝게 이어지리라"라고 서원하며 점등한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채 전해오고 있다.

엔랴쿠지는 오는 2021년,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년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불멸의 법등 전국행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불멸의 법등을 모시고 일본 전국에 소재한 약 2천 6백여개소의 천태종 사찰들을 행각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근본중당에서 등불을 나누는 '분등식(分燈式)'이 봉행됐다. 그러나 당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약 2달 가량 행각을 연기, 등불을 히에이산의 모처에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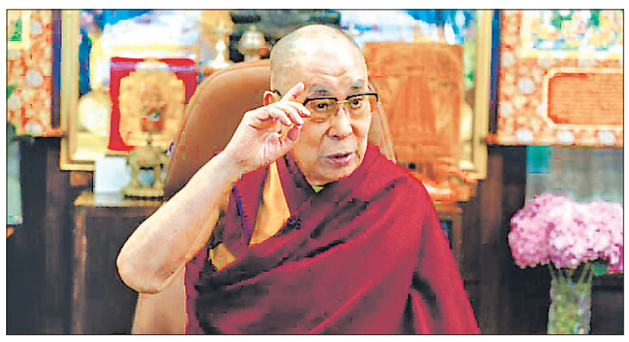
2달이 지난 지금, 히에이산과 기념법회 준비위원회는 오랜 기간의 숙고 끝에 결국 행각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분등된 4개의 등불도 보관 중이던 곳에서 원래의 근본중당으로 반납됐다. 반납과 함께 전국행각은 내년 봄으로 잠정 연기됐다.

기념법회 준비위원회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코로나 19의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이상, 현 단계에서 행각을 개시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준비된 모든 일정을 재고할 예정이다. 상황의 추이를 봐서 가능하면 내년 봄에 일정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7월 1일, 히에이산 근본중당에서 봉행된 반등식(返燈式)은 준비위원회 임원들과 엔랴쿠지 대중스님들로만 간소하게 진행됐다.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인 타다 도유 스님은 법요식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불멸의 법등으로 치유하기 위해 조속히 전국행각이 재개되길 바란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85번째 생일 행사 간소화

망명정부, 1년간 탄신 이벤트
"만트라 독송으로 축하" 당부


사진출처=달라이 라마 공식 홈페이지

7월 6일(현지 시간) 85번째 생일을 맞은 달라이 라마가 불자들에게 "110세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 더트리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7월 7일(현지 시간) "팬더믹(대유행) 때문에 생일잔치를 크게 열 수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며 "불자들이 내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면 만트라(티베트 불교식 주문)를 읊으며 기도해 달라. 그 덕으로써 내가 110세 또는 108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달라이 라마의 85번째 탄신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간소하게 치뤄졌다.

티베트 망명 정부(CTA, Central Tibeta Administration)는 "달라이 라마의 모든 업적과 기여에 감사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나누고 함께하고자 한다. 모두 축하해 달라"며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달라이 라마의 탄신 기념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념 행사는 지난 6일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 주의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의회에서 50여 고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불자들은 각 지역에 마련된 별도의 의식 행사에서 달라이 라마의 탄신을 기념했다.

이밖에 지난해 8월 제76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에 초연됐던 다큐멘터리 '과학자 달라이 라마'도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공개된다. '과학자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가 수많은 과학자와의 만남을 통해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달라이 라마의 생애 첫 육성 앨범 '내면의 세계'(Inner World)도 발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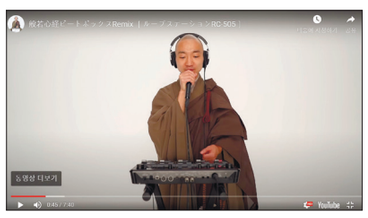
해당 앨범은 잔잔한 배경 음악에 맞춰 만트라를 외는 달라이 라마의 육성 11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달라이 라마는 해당 앨범의 제작 배경에 대해 "내 삶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음악은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앨범 제작은 달라이 라마의 제자인 주넬 쿠닌이 맡았다. 주넬 쿠닌은 "2015년 달라이 라마가 앨범 제작을 승낙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며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달라이 라마의 사저에서 녹음 작업을 진행했고, 배경음악 등은 뉴질랜드에서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베트 불교는 윤회 · 환생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이 라마의 사후 환생한 소년을 찾아 후계자로 삼는 전통을 수백 년간 이어왔다. 14대인 현재 달라이 라마는 2살이던 1947년 여러 차례에 걸친 환생 검증시험을 통과한 후 1940년 공식 즉위했다. 1930년 중국의 침공으로 티베트의 주권을 뺏긴 후, 달라이 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고 60여 년간 비폭력 독립운동을 펼쳤다. 1989년에는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비트박스로 불경 독송을? 日 스님 화제

미VICE, 아카사카 스님 조명
유튜브 통해 '비트박스 포교'


유튜브 채널서 '비트박스 포교'를 하는 일본 승려 요게츠 아카사카(Yogetsu Akasaka). **사진출처=VICE**

비트박스(Beatbox)로 불교 명상 음악을 만드는 일본 승려가 화제다.

미국 언론 'VICE'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박스 포교'를 하는 일본 승려 요게츠 아카사카(Yogetsu Akasaka · 37)를 소개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아카사카 스님은 지난 5월 이른바 'ASMR' 처럼 긴장을 완화시키고 조용한 느낌의 'Heart Sutra Live Looping Remix'를 게시한 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루프(Loop)로 소리를 겹겹이 쌓고, 그 위에 '목소리'라는 하나의 악기를 얹어 불경을 독송한다. 해당 영상은 1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가 전 비트박스를 즐겨했다"는 아카사카 스님은 "승려인 아버지의 대를 잇는 일본 불교의 전통에 따라 출가했지만 음악과 불교를 접목시키고 싶었다. 비트박스 포교는 음악에 대한 내 열정을 재발견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오해를 산산조각 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스님과 법복, 비트박스가 어우러지는 화면이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대중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연주자와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2020년 제17회
대원상
(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2020년 제17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 분야(개인 또는 단체)
(1) 출가 부문
(2) 재가 부문

◑ 시상 종류 및 상금
대상 : 1,000만원 ~ 2,000만원
특별상 : 500만원 ~ 1,000만원
장려상 : 300만원 ~ 600만원

◑ 상금 총액 : 1억 3천만원 이내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개인 또는 단체)
(1) 출가 부문
- 사회 활동, 강연(설법), 콘텐츠 제작, 저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2) 재가 부문
- 사회 활동, 강연(설법), 콘텐츠 제작, 저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재가자 개인 또는 재가자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후보자(후보 단체 포함)가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시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 서류 : 제17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 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기간 : 2020년 9월 21일(월) ~ 10월 8일(목)

접수 및 문의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